

# 李白의 <早春於江夏送蔡十還家雲夢序>와 <秋日於太原南柵餞陽曲王贊公賈少公石艾尹少公應舉赴 上都序> 역해

趙成千·趙得昌\*

##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早春於江夏送蔡十還家雲夢序(이른 봄江夏에서 고향雲夢으로 돌아가는蔡十을 전송하며 서문을 쓰노라)
  - 2.2 秋日於太原南柵餞陽曲王贊公賈少公石艾尹少公應舉赴上都序(가을날太原의南柵에서 친거에 응하여 장안으로 가는陽曲縣의王縣丞, 賈縣尉, 石艾縣의尹縣尉를 전별하며 서문을 쓰노라)
3. 해설 및 결론

## 1. 서론

현존하는 李白의 散文은 모두 67편(賦 포함)과 <雜題四則>이다.<sup>1)</sup> 그의 산문을 문체로써 보면, 書表序記, 頌讚銘碑, 祭文辭賦이다. 이백의 산문은 그의 삶과 사상을 고증하고, 시를 이해하는데 보조 자료가 되며, 그의 문학사상 및 예술세계를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

\* 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主著者)·協成大學校 中國通商·文化學科 教授(交信著者 chodc38@nate.com)

1) 中華書局的 王琦注《李太白全集》에는 <比干碑>와 <雜題四則>이 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比干碑>는 《全唐文》에서는 李翰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서 이백에 대한 연구는 시 작품에 편중되었다. 국내의 경우, 이백의 산문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어 학위논문으로는 1997년에 발표된 <李白散文研究> 1편이고,<sup>2)</sup> 소논문 역시 많지가 않다. 특히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역해연구는 극히 미미하다. 중국의 경우, 詹鍔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는 校記·註釋으로 팔목할만하지만 국내 연구자들이 참고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백 산문 전편을 역해하여, 국내외 이백 연구에 중요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表3편, 書4편, 序8편 총15편<sup>3)</sup>에 대한 역해연구를 진행하여 완성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序에 대한 역해연구로 <早春於江夏送蔡十還家雲夢序> · <秋日於太原南柵餞陽曲王贊公賈少公石艾尹少公應舉赴上都序> 2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외 이백 산문에 대한 첫 역해 성과가 되고, 이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원문, 校記, 번역, 주석, 해설의 형식을 취한다. 원문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校記에서는 詹鍔 등의 기존 연구 성과를 수록하면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것, 연구자의 의견을 추가한다. 번역은 축자해석을 지향하되, 의미의 원활과 순통을 위해서 의역을 한다. 주석은 자구 풀이는 물론 관련 用例, 典故 등을 들어 그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 연구를 수용하면서 연구자의 새로운 관점, 성과를 추가한다. 해설에서는 창작 연대, 작품의 해제, 역대평론, 작품의 특성 및 예술성취 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詹鍔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을 기본으로 하고,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牛寶彤 主編 《李白文選》,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및 郁賢

2) 신정수, <李白散文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3) 表3편: <爲吳王謝責赴行在遲滯表> · <爲宋中丞請都金陵表> · <爲宋中丞自薦表>, 書4편: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 <上安州李長史書> · <與賈少公書> · <爲趙宣城與楊右相書>, 序8편: <早春於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 · <奉餞十七翁二十四翁尋桃花源序> · <夏日奉陪司馬武公與群賢宴姑熟亭序> · <江夏送林公上人遊衡嶽序> · <金陵與諸賢送權十一序> · <春於姑熟送趙四流災方序> · <秋於敬亭送從姪崑遊廬山序> · <送黃鐘之鄱陽謁張使君序>.

皓 註釋 《新譯李白文集》 등을 참고로 한다.

## 2. 본 론

### 2.1. 早春於江夏送蔡十還家雲夢序<sup>4)</sup>

(이른 봄江夏에서 고향雲夢으로 돌아가는蔡十을 전송하며 서문을 쓰노라)

吾觀蔡侯<sup>5)</sup>, 奇人也. 爾其才高氣遠<sup>6)</sup>, 有四方之志<sup>7)</sup>, 不然, 何周流宇宙太多耶<sup>8)</sup>? 白遐窮冥搜<sup>9)</sup>, 亦以早矣<sup>10)</sup>. 海草三綠<sup>11)</sup>, 不歸國門<sup>12)</sup>, 又更逢春, 再結鄉

- 
- 4) 江夏: 지금의 湖北省 武漢市 江夏區. ○蔡十: 향렬이 열 번째 되는 이로, 성 蔡에 十을 붙여 호칭하였다. 이름은 미상이다. 還家雲夢이라 한 것으로 보아, 고향이 雲夢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 雲夢은 縣으로 安州(지금의 湖北省 安陸市)에 속해 있었다. 詹鏞은 李白의 시 <送蔡山人>에 나오는 蔡山人이 蔡十이라고 하였다.(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百花文藝出版社, 1996년, 4092쪽)
  - 5) 蔡侯: 侯는 唐代 때 사대부 사이에 사용되던 존칭어. '君'의 뜻. 蔡十을 말한다. 杜甫의 시 <與李十二白同尋范十隱居>의 "李侯에게는 아름다운 시구 있으니, 왕왕 陰鏗의 것과 비슷하네.(李侯有佳句, 往往似陰鏗.)"에 그 용례가 있다.
  - 6) 爾: '而'와 통한다. 접속사. ○其: 蔡侯를 가리킨다.
  - 7) 四方之志: 제왕을 보좌하며 천하를 다스리겠다는 뜻.
  - 8) 周流宇宙: 천하를 주유하다. ○周流: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다. 《楚辭·離騷》의 "사방을 끝까지 둘러보고, 하늘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나는 이에 (땅으로) 내려왔네.(覽相觀於四極兮, 周流乎天余乃下.)"에 그 용례가 있다.
  - 9) 遐窮: 오랫동안 끝까지 찾다. ○冥搜: 깊숙한 곳까지 찾다. 《文選》 권11 孫綽<遊天台山賦·序>의 "만약 마음을 다해 찾지 않는다면, 신과 통하는 사람을 굳게 믿어야 하리.(非夫遠寄冥搜, 篤信通神.)"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정을 멀리에 기대고, 아득히 멀리 찾다.(寄情遐遠, 搜訪幽冥.)"라고 주석하였다.
  - 10) 以: '已'와 통한다. '이미'이다.
  - 11) 海草: 수초. 옛날에 長江 중 넓은 수역을 海라고 일컫었다. 때문에 水草를 海草라고 한다. 李白은 그의 시에서 종종 水草를 海草로 표현하였다. ○三綠: 봄이 세 번 지났음을 뜻한다.
  - 12) 國門: 본래는 도읍의 성문. 문장에서는 고향의 문으로 즉 고향을 가리킨다. 이 고향에 대해 詹鏞은 李白이 머물던 安陸을 가리킨다고 하고(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4093쪽), 郝賢皓는 綿州昌明縣(지금의 四川省 江油市)을 가리킨다고 하였다.(郝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鳳凰出版社, 2015년, 3782쪽).

思. 一見夫子<sup>13)</sup>, 冥心道存<sup>14)</sup>. 窮朝晚以作宴, 驅煙霞以輔賞<sup>15)</sup>. 朗笑明月<sup>16)</sup>, 時眠落花. 斯遊無何<sup>17)</sup>, 尋告睽索<sup>18)</sup>. 來暫觀我, 去還愁人<sup>19)</sup>.

<校記>

[亦以] ‘以’가 郭本<sup>20)</sup>·《全唐文》<sup>21)</sup>에서는 ‘已’로 되어 있다.

[睽索] ‘睽’가 郭本·《全唐文》에서는 ‘睽’로 되어 있다.

[觀我] ‘觀’에 대해 何校陸本<sup>22)</sup>에서 “觀은 歡인 듯하다(觀, 疑歡)”라고 하였다.

내가 蔡侯를 살펴보니, 그 사람은 보통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재주도 많고 기상도 원대하고, 제왕을 도우며 천하를 다스리겠다는 뜻을 가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천하를 주유했단 말인가? 나 李白은 (뜻을 이루고자) 오랫동안 끝까지 찾고, 깊숙한 곳까지 찾은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수초가 세 번이나 푸르게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또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되어 고향에 대한 생각이 또 맺히게 되었다. 언뜻 蔡十을 보자 속념을 벗어 던지고 도를 간직하려는 마음이 같았다. 아침저녁 다하도록 잔치를 벌이고, 안개와 노을 속에서 달리며 감상하는 것을 도왔다. 밝은 달 아래서 쾌활하게 웃고, 때로는 떨어진 꽃잎 속에서 잠들었다. 이번 놀이는 얼마 못 가

13) 夫子: 선비에 대한 존칭으로 여기에서는 蔡十을 가리킨다.

14) 冥心道存: 속념을 벗어 던지고 도를 간직하려는 마음이 같다. 李白 자신과 지향이 서로 같고 합치된다는 뜻이다. ○冥心: 속념을 벗어 던지다. 《魏書·逸士傳序》의 “속념을 벗고 속세의 밖을 향해, 개연히 속세를 떠나다.(冥心物表, 介然離俗.)”에 그 용례가 있다. 郁賢皓는 ‘속념을 벗어 던지고 마음을 고요히 하다’로(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3782쪽), 詹鏞은 ‘물두하여 애써 생각하다’(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4093쪽)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郁賢皓의 의견을 취해 번역하였다.

15) 煙霞: 안개와 노을의 뜻으로, 보통 산수, 산림을 가리킨다.

16) 朗笑: 쾌활하게 웃다. 명랑하게 웃다.

17) 無何: 오래지 않아. 짧은 시간 후에.

18) 尋: 곧. ○睽索: 분리. 이별. 何遜<寄江州褚諮議>의 “오년동안 함께 옷을 입다가, 하루아침에 헤어져 떠나네.(五載共衣裳, 一朝異睽索.)”에 그 용례가 있다.

19) 還: 오히려.

20)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21) 中華書局에서 영인한 清 禦製 《全唐文》.

22) 淸의 何焯가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10卷에 교주하고 跋을 쓴 책.

곧 이별을 고하는구나. 그대는 잠시 날 만나러 왔지만, 그대의 떠남은 오히려 날 근심스럽게 한다.

乃浮漢陽, 入雲夢<sup>23)</sup>. 鄉柵云叩<sup>24)</sup>, 歸魂亦飛. 且青山綠楓<sup>25)</sup>, 累道相接<sup>26)</sup>, 遇勝因賞<sup>27)</sup>, 利君前行. 既非遠離, 曷足多歎<sup>28)</sup>!

<校記>

[遇勝] ‘遇’가 陸本<sup>29)</sup>에서는 ‘過’로 되어 있다. 何校陸本에서는 ‘過’를 ‘遇’로 고쳐 놓았다. 詹鍇은 ‘遇’가 옳다고 하였다.

그대는 배를 타고 漢陽으로 갔다가 漢水를 거슬러 雲夢으로 들어간다. 귀향하는 배의 뱃전을 두드리니, 귀향하는 혼이 덩달아 날아갈 것이다. 장차 푸른 산과 푸른 단풍이 길에 접해 있어, 빼어난 풍경 만난 김에 감상을 할 터이니, 그대가 앞으로 나아감에 아주 좋다. 기왕 영원한 이별이 아니니, 어찌 탄식을 많이 할 필요가 있으리오?

23) 乃浮漢陽, 入雲夢: 배를 타고 漢陽으로 갔다가 漢水를 거슬러 雲夢으로 들어간다. 蔡十이 귀향할 때에는 漢水를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鄖水로 들어가서 雲夢에 이르러야 했다. ○漢陽: 지금의 湖北省 武漢市 漢陽區.

24) 鄉柵云叩: 귀향하는 배의 뱃전을 두드리다. ○鄉柵: 귀향하는 배의 뱃전. ○鄉: 구체적으로 雲夢을 가리킨다. ○柵: 뱃전. 《文選》 권26 陶潛<辛丑歲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口>의 “뱃전을 두드리며 새로 뜬 가을달 맛이하고, 강가에 이르러 벗과 작별하네.(叩柵新秋月, 臨流別友生.)”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楚辭》에서 말한 ‘어부가 뱃전을 두드리며 가네’에 대해 王逸이 ‘뱃전을 두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楚辭》曰: ‘漁夫鼓柵而去.’ 王逸曰: ‘叩船舷也.’)”라고 주석하였다. 그리고 <九歌·湘君>의 “계수나무 상앗대와 목란 뱃전으로, 얼음을 깨니 쌓인 눈 뒤는 듯하네.(桂櫂兮蘭枻, 斨冰兮積雪.)”에도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枻는 배의 양 옆 판자이다.(枻, 船旁板也.)”라고 주석이 되어 있다. ○云: 어조사.

25) 且: 장차

26) 累: 연하다. 잇달아 있다.

27) 勝: 빼어난 풍경 ○因: ~한 김에.

28) 既非遠離, 曷足多歎!: 이 구절은 江夏에서 雲夢까지는 짧은 거리이니 탄식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曷: 어찌

29) 明 正德14年(서기 1519년)에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10卷.

秋七月，結遊鏡湖<sup>30</sup>。無愆我期<sup>31</sup>，先子而往。敬慎好去，終當早來<sup>32</sup>。無使耶川白雲<sup>33</sup>，不得復弄爾。鄉中廖公及諸才子爲詩略謝之<sup>34</sup>。

<校記>

[無愆] ‘愆’가 劉本<sup>35</sup>에서는 ‘愆’로 되어 있는데, 詹鏞은 틀린 것이라고 하였다.

[耶川] 咸本<sup>36</sup>·陸本·郭本에서는 ‘晚耶’로 되어 있는데, 詹鏞은 틀린 것이라고 하였다. 何校陸本에서는 ‘晚耶’를 ‘耶川’으로 고쳐 놓았다. 劉本에서는 ‘耶川’ 위에 ‘若’자가 있다.

[略謝之] ‘略’이 劉本에는 없다.

가을인 7월, 함께 경호로 유람가기로 하였잖소. 우리들의 기약을 어기지 마시기를. 그대 보다 먼저 (그곳에) 갈 것이다. 공경하고 삼가하며 조심해서 갔다가, 어찌 되었든 꼭 일찍 돌아오기를 바라오. (늦게 돌아와) 耶川의 흰 구름을 다시 감상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기를. 安州의 廖公 및 여러 才子들이 시를 지어 그대에게 이별의 뜻을 약간이나마 나타냅니다.

30) 鏡湖: 鑑湖를 말한다. 지금의 浙江省 紹興市 西南쪽에 위치해 있다.

31) 愆: 허물, 과실. 《說文解字》에서 “愆은 허물이다.(愆, 過也.)”라고 하였다. 愆은 愆과 통하는 글자이다. 愆은 《詩經·衛風·氓》의 “내가 기일을 지연한 게 아니라, 그대에게 좋은 중매가 없음이라.(匪我愆期, 子無良媒.)”에 그 용례가 있는데, 毛傳에서 “愆은 허물이다.(愆, 過也.)”라고 하였다.

32) 當: 마땅하다.

33) 耶川: 若耶溪이다. 지금 浙江省 紹興市에서 남쪽으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 若耶山 아래에 있다. 북쪽으로 鏡湖로 흘러 들어간다. 西施가 비단을 빨던 곳으로 전해진다.

34) 鄉中: 安州를 가리킨다. ○廖公: 李白의 산문 <送戴十五歸衡岳序>의 “安州의 빼어난 인재 중에 廖侯가 있다.(鄖國之秀, 有廖侯焉.)”에 나오는 安州의 廖侯이다. 이름과 생적은 미상. ○謝: 사례하다.

35)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 중 《李翰林全集》 42卷.

36)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 2.2. 秋日於太原南柵餞陽曲王贊公賈少公石艾尹少公應舉赴上都序<sup>37)</sup>

(가을날 太原의 南柵에서 천거에 응하여 장안으로 가는 陽曲縣의 王縣丞, 賈縣尉, 石艾縣의 尹縣尉를 전별하며 서문을 쓰노라)

天王三京, 北都居一<sup>38)</sup>. 其風俗遠, 蓋陶唐氏之人歟<sup>39)</sup>? 襟四塞之要衝<sup>40)</sup>, 控五原之都邑<sup>41)</sup>, 雄藩劇鎮, 非賢莫居<sup>42)</sup>.

- 37) 太原: 唐의 北都, 지금의 山西省 太原市를 말한다. ○南柵: 지명, 太原의 南柵. 柵은 木柵, 柵欄을 말한다. 古代의 軍營에서 柵欄으로 담을 만들었다. <後漢書·段熲傳>의 “천 명을 서현에 파견하여 나무를 묶어 목책을 만들었다.(乃遣千人於西縣結木爲柵.)”에 그 용례가 있다. ○陽曲, 石艾: 縣의 이름. 지금의 山西省 太原市 陽曲鎮 및 平定縣南新城村. ○贊公, 少公: 縣丞, 縣尉. <容齋四筆·官稱別名>에 “唐나라 사람들은 縣令을 明府라 칭하고, 縣丞을 贊府라 칭하고, 縣尉를 少府라 칭하였다. <李太白集> 가운데 <餞陽曲王贊公賈少公石艾尹少公序>가 있다. 이 시는 대개 陽曲縣丞과 縣尉 및 石艾의 縣尉를 전별할 때 쓴 것이다. 글 가운데 ‘贊府’를 ‘贊公’, ‘少府’를 ‘少公’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칭호는 더욱 특이하다. (唐人呼縣令爲明府, 丞爲贊府, 尉爲少府. <李太白集>有<餞陽曲王贊公賈少公石艾尹少公序>. 蓋陽曲丞, 尉, 石艾尉也. ‘贊公’, ‘少公’之語益奇.)”라는 기록이 있다. ○上都: 西京 즉 長安을 말한다.
- 38) 天王三京, 北都居一: 천자가 3개의 京都를 확정하였는데, 北都太原이 그 가운데 하나. 唐代에는 雍州를 京兆府, 長安을 京師, 洛州를 河南府, 洛陽을 東都, 并州를 太原府, 太原을 北都라고 하였다. 天寶 원년에 京師를 四京이라 하고, 東都를 東京, 北都를 北京이라 하였다. <元和郡縣志> 卷13, 河東道太原府에 “天授元年(690)에 都督府를 폐지하고 北都를 설치하였다. 神龍원년(705)에 옛날에 의거하여 并州大都督府를 만들었다. 開元11年(723)에 현종이 이 주에 행차하였는데, 왕업으로 일으켜서 또 北都를 세우고, 并州를 太原府로 고쳤다. <起義堂碑>를 세워서 그 일을 기록하였다. …天寶元年(742)에 北都를 北京으로 고쳤다. (天授元年罷都督府, 置北都. 神龍元年依舊爲并州大都督府. 開元十一年, 玄宗行幸至此州, 以王業所興, 又建北都, 改并州爲太原府. 立<起義堂碑>以記其事…天寶元年改北都爲北京.)”라는 기록이 있다.
- 39) 陶唐氏: 堯 임금. <史記·五帝本紀>에 “帝堯는 陶唐이라 부르고, 帝舜은 有虞라고 부른다. (帝堯爲陶唐, 帝舜爲有虞.)”라는 기록이 있다. <元和郡縣志> 卷13, 河東道太原府에 堯 임금과 太原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있다. “<帝王世紀>에 ‘요 임금이 처음에 唐에 봉해졌다가, 또 晉陽으로 옮겼고, 천자가 되어서는 平陽에 도읍하였다’고 했다. 平陽은 지금의 并州이고, 晉陽은 지금의 太原이다. (<帝王世紀>曰 ‘帝堯始封於唐, 又徙晉陽, 及爲天子, 都平陽.’ 平陽卽今晉州, 晉陽卽今太原也.)”
- 40) 襟四塞之要衝: 太原 지역은 사방이 모두 關塞의 교통 요도임을 말한다. (晉)盧諲<理劉司空表>에 “모두 并州의 땅으로 삼았는데, 사방 요새가 견고하여 동쪽으로는 井陘을 막고 서쪽으로는 藍谷을 제한하였다. 앞에는 太行山의 봉우리가 있고, 뒤로는 句注山의 관문이 있어 또한 관문을 열고 닫으면서 험지를 지키며 자본을 축적하고 무리를 길렀다. (咸以爲并州之地, 四塞爲固, 東阻井陘, 西限藍谷, 前有太行之嶺, 後有句注之關. 且可閉關守險, 畜資養徒.)”라는 기록이 있다. ○襟: 옛날 옷깃은 좌우로 교차시킨다. 이로써 지세가 요충에 응거함을 비유.
- 41) 五原: 五原郡. 漢 무제 때 설치. 唐代의 鹽州, 豐州, 勝州 모두가 그 옛 지역이다. 太原으로

천자께서 세 개의 京都를 확정하셨는데, 北都 太原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곳의 민풍과 습속은 오래 전승되었으니, 아마도 전설의 陶唐氏가 전해 내려온 사람이겠지! 太原이라는 곳은 사방이 모두 關塞의 교통 요충지에 웅거하여, 五原지역 도읍을 제어하고 있다. (太原은) 長安 북부의 중요 藩鎮으로, 현자가 아니면 이곳에서 관직을 맡을 수 없는 곳이다.

則陽曲丞王公, 神仙之胄也<sup>43)</sup>. 爾其學鏡千古, 知周萬殊<sup>44)</sup>. 又若少府賈公, 以述作之雄也<sup>45)</sup>, 鼇弄筆海, 虎攫辭場<sup>46)</sup>. 又若石艾尹少公, 廊廟之器<sup>47)</sup>, 口折黃

부터 400여리 떨어져 있다. 《元和郡縣志》 卷4, 鹽州條下에 “漢武帝 元朔2年(기원전 127)에 五原郡을 설치하였다. 그 지역에는 原 다섯 곳이 있어서 五原이라 하였다. …貞觀2년(628)에… 鹽州를 설치하였다. 天寶元年(742)에 五原郡으로 고쳤고, 乾元元年(758)에 다시 鹽州라 하였다. …五原은 龍游原, 乞地千原, 靑領原, 可嵐貞原, 橫槽原을 이른다. (漢武帝 元朔二年置五原郡, 地有原五所, 故號五原. …貞觀二年…置鹽州, 天寶元年改爲五原郡. 乾元元年復爲鹽州. …五原, 謂龍游原·乞地千原·靑領原·可嵐貞原·橫槽原也.)”라는 기록이 있다.

- 42) 雄藩: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고, 인적, 물적 역량이 충분한 藩鎮. 《舊唐書·嚴綬傳》의 “전후로 三鎮을 통치하였는데, 모두 雄藩이라 하였다. (前後統臨三鎮, 皆號雄藩.)”에 그 용례가 있다. ○劇鎮: 政務가 많고 중요한 藩鎮. 元稹 <贈王承宗侍中制>의 “劇鎮에 머무름에 미쳐서 더욱 재능이 출중한 사람을 구별해내었다. (逮居劇鎮, 益辨長材.)”에 그 용례가 있다.
- 43) 神仙之胄: 신선의 후예. 전하는 바에 따르면, 王氏일파가 周 靈王의 太子 뜰에서 나왔는데, 그가 神仙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曲陽縣丞인 王公을 ‘신선의 후예’라고 하였다.
- 44) 爾: 대명사. 王公을 가리킨다. ○鏡: 明察, 明鑑하다. 《漢書·谷永傳》의 “원컨대, 폐하는 夏·商·周·秦이 잃게 된 까닭을 살펴보시어, 자신의 행동을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願陛下追觀夏·商·周·秦所以失之, 以鏡考己行.)”에 그 용례가 있다. 여기에 顏師古가 “鏡은 살펴다 이고, 考는 본받다 이다(鏡謂監照之. 考, 校也.)”라고 주석하였다. ○萬殊: 각종 다른 현상과 사물. 《易傳序》에 “흩어져 이치로 보면 만 가지로 다르고, 통합하여 도에서 보면 두 가지 이치가 없다. (散之在理, 則有萬殊, 統之在道, 則無二致.)”고 하였다.
- 45) 述作: 저술하다. 《論語·述而》의 “옛 것을 서술할 뿐 창작하지 않으며, 옛 것을 믿고 좋아한다. (述而不作, 信而好古.)”에 관련 내용이 있다. 朱熹는 “述은 옛 것을 전할 뿐이요, 作은 創始이다. (述, 傳舊而已; 作, 則創始也.)”라고 하였다. 나중에 ‘述’은 ‘저술하다’라는 말로 쓰였다. ○以: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 ○雄: 뛰어난다.
- 46) 鼇弄筆海, 虎攫辭場: 바다거북이 바닷물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며 다니듯 자유자재로 붓을 휘두르다. 호랑이가 먹이를 움켜쥐듯 문단에서 질주한 것을 말한다. (牛寶彤 主編, 《李白文選》, 學苑出版社, 1989년, 121쪽). 바다거북은 바다의 신령스런 동물, 호랑이는 백수의 제왕으로, 이로써 賈公이 문단의 영걸임을 형용. (詹鏞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4099쪽. 郁賢皓注譯, 《新譯李白文集》, 222쪽.)
- 47) 廊廟之器: 조정의 중임을 담당할만한 사람. 제상의 재능. 廊廟은 조정. 《三國志·許靖傳》의 “許靖이 일찍이 명성이 있었는데, 이미 돈후함으로도 마음에 부합하고 또 인물로도 뜻에 맞았다. 비록 일을 처리하고 움직이는데 모두 적당하지는 않았지만, 장제(蔣濟,

馬48), 手揮青萍49). 成道貫於人倫, 名飛於日下50). 實難沈屈51), 永懷青霄52). 劍有隱而氣衝七星, 珠雖潛而光照萬壑53).

?~249년, 위나라 신하, 자는 子通, 초국 평야현 사람)는 대략 '조정의 중임을 담당할 만한 사람'으로 여겼다.(許靖夙有名譽, 既以篤厚爲稱, 又以人物爲意, 雖行事舉動, 未悉允當, 蔣濟以爲'大較廊廟器'也.)"에 그 용례가 있다.

48) 口折黃馬: 언변이 뛰어난. 辯才가 좋음. ○黃馬: 황색 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비유. 그 전고가 《莊子·雜篇·天下》에 있다. "혜시는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하여, 장서가 수레 다섯 대에 실을 정도로 많았으나, 그 도는 어수선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 말이 이치에 맞지 못했다. 그는 사물의 뜻을 늘어놓고 이렇게 말했다.…강아지는 개가 아니다. 황색 말과 검은 소는 합해서 셋이다.… 혜시는 날마다 지혜를 이용하여 사람들과 논변하고 독특하게 천하의 변사들과 함께 기괴한 설을 내세웠다. 이것이 그 학설의 대략이다. 그러나 혜시 자신은 그가 논하는 것을 가장 뛰어난다고 생각하여, '나의 변론은 천지의 장대함과 같도다!'라고 했다.(惠施多方, 其書五車, 其道舛駁, 其言也不中. 歷物之意曰…狗非犬. 黃馬驪牛三…惠施日以其知與之辯, 特與天下之辯者爲怪, 此其抵也. 然惠施之口談, 自以爲最賢. 曰: '天地其壯乎!')

49) 手揮青萍: 무예에 정통하다. ○青萍: 보검의 이름.

50) 人倫: 사람들의 윤리. 보통 장유유서 등을 말한다. 《孟子·滕文公上》의 "人倫이 위에서 밝아지면, 백성은 아래에서 친화하게 된다.(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에 그 용례가 있다. ○日下: 京都. 고대에는 '태양(日)'으로 제왕을 비유, 이로써 황제가 있는 곳을 '日下'라고 하였다.

51) 沈屈: 묻히다, 매몰되다. 《魏書·孝感傳·閻元明》의 "(楊風 등은) 비록 군대를 매몰시켰지만, 지조와 포부가 더욱 높았다.(雖沈屈兵伍而操尚彌高.)"에 그 용례가 있다. 문장에서는 "능력 혹은 재능이 묻히다"의 뜻.

52) 青霄: 푸른 하늘. 高空. 左思《蜀都賦》의 "하늘 높이 올라가 특출하게 빼어나고, 붉은 수기를 펼쳐 붉은 노을 만드네.(干青霄而秀出, 舒丹氣而爲霞.)"에 그 용례가 있다.

53) 劍有隱而氣衝七星, 珠雖潛而光照萬壑: 보검이 땅 밑에 숨겨져 있으면 그기가 斗宿과 牛宿를 뚫고 올라가고, 진주가 물 밑에 잠겨 있으면 그 광채가 수많은 골짜기를 비춘다. 七星: 북두성. 王奇는 "七星은, 북두성을 말한다. 豐城劍氣가 건우와 북두 사이를 뚫고 올라간 일을 은근히 사용한 것이다.(七星, 謂北斗之星, 暗用豐城劍氣冲牛斗間事.)"라고 하였다. 《晉書·張華傳》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張華는 예장사람인 雷煥이 별자리 모양에 신묘하고 통달했다는 말을 듣고 … 뇌환이 말하길, '저는 저것을 관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직 斗宿과 牛宿 사이에서 자못 기이한 기운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장화가 말하길, '이것은 어찌서 상서롭습니까?' 하였다. 뇌환이 말하길, '보검의 정기가 위로 올라가 하늘을 뚫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장화가 크게 기뻐하고 즉시 뇌환을 豐城에 앉혔다. 뇌환이 풍성현에 이르러 감옥 터를 뚫고서 땅속으로 4장정도 들어가서 돌 상자 하나를 찾았는데 빛나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고 그 속에 쌍검이 들어있어 각각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는 龍泉이고 하나는 太阿였다. 이 날 저녁, 斗宿과 牛宿 사이에는 기운이 보이지 않았다.(華聞豫章人雷煥妙達緯象…煥曰: '僕察之久矣, 惟斗牛之間頗有異氣.' 華曰: '是何祥也?' 煥曰: '寶劍之精, 上徹於天耳.' …華大喜, 卽補煥豐城令. 煥到縣, 掘獄屋基, 入地四丈餘, 得一石函, 光氣非常, 中有雙劍, 並刻題, 一曰龍泉, 一曰太阿. 其夕, 斗牛間氣不復見焉.)" ○珠潛: 진주가 물 밑에 잠겨 있다. 陸機《文賦》에 이 구절과 유사한 묘사가 있다. "산의 돌 가운데 옥을 품고 있으면, 산은 광휘를 발하고, 물이 진주를 품고 있으면 강하가 아름답게 된다.(石韞玉而山輝, 水懷珠而川媚.)"

## &lt;校記&gt;

[口折] ‘口’가 劉本에서는 ‘品’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陽谷의 현승 王公은 신선의 후예로, 그의 학문은 아주 오랜 옛날을 밝게 살피고, 지식은 만사의 이치에 박식하였다. 또 陽谷의 현위 賈公은 저작에 뛰어났다. 바다거북이 바닷물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며 다니듯 문필의 바다에서 자유자재로 붓을 휘두르고, 호랑이가 먹이를 움켜쥐듯 문단에서 질주하였다. 또 石艾의 현위 尹公은 조정의 중임을 담당할만한 사람으로 언변이 뛰어났으며 무예에 정통하였다. 이들 모두는 그 도의가 사람들 윤리에서 관통되고, 그 명성이 京都에 드날릴 수 있었다. 이 분들의 재능은 실로 매몰될 수 없었고, 청운의 뜻을 길이 품어 왔다. 보검이 지하에 묻혀 있으면 그 기가 斗宿과 牛宿를 뚫고 올라가고, 진주가 물 밑에 잠겨 있으면 그 광채가 수많은 골짜기를 비추기 마련인 것과 같았다.

今年春, 皇帝有事千畝<sup>54)</sup>, 湛恩八埏, 大搜群才, 以緝邦政<sup>55)</sup>. 而王公以令宰見舉, 賈公以王霸昇聞<sup>56)</sup>. 海激佇乎三千, 天飛期於六月<sup>57)</sup>, 必有以也, 豈徒然

54) 今年春: 開元23년(735)을 말한다. ○有事千畝: 황제가 千畝의 籍田에서 親耕하다. 《禮記·祭儀》에 “옛날에 천자는 籍田에 천묘를 두고 면류관에 붉은 끈을 달고 몸소 쟁기를 잡았느니라. 제후는 적에 백묘를 두고 면류관에 푸른 끈을 달고 몸소 쟁기를 잡았느니라. (天子爲籍千畝, 冕而朱紘, 躬秉耒. 諸侯爲籍百畝, 冕而青紘, 躬秉耒.)”라는 기록이 있다. 고대는 천자와 제후가 친히 籍田에서 농사를 짓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농사를 권장하였다.

55) 湛恩八埏, 大搜群才, 以緝邦政: 깊은 은혜를 내리고 못 인재를 초빙하여 국가정무를 잘 다스림. 왕기는 이 3구에 대하여 “《玉海》: 개원 23년 정월 己亥에 황제가 籍田에 친경하고, 대사면을 하고 勳爵을 내렸다. 이른바 ‘팔방에 깊은 은혜를 내리고 못 인재를 대대로 초빙하였다.(湛恩八埏, 大搜群才.)’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말한다.(《玉海》: 開元二十三年正月己亥, 耕籍田, 大赦, 賜勳爵, 所謂湛恩八埏, 大搜群才, 正指斯事.)”고 하였다. ○湛恩: 深恩, 湛은 深의 의미. ○八埏: 팔방. ○緝: 빛나게 하다. 잘 다스리다. ○邦政: 국정.

56) 以令宰見舉: 王公이 우수한 현령으로 천거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舊唐書·玄宗紀上》에 나오는데, 이 책에 開元23년 正月에, 玄宗이 조서를 내려 현자를 구했다는 글이 실려 있다. “그 재주가 패왕의 업을 이룰 수 있는 지력이 있고, 학문은 천인의 관계를 탐구할만하고 또한 지모는 장수를 말을 만하고, 정무는 주현장관(牧宰)을 담당할 만한 자에 대하여 오품 이상 청관 및 자사로 하여금 각 한 명씩을 천거하도록 하였다.(其才有霸王之略, 學究天人之際, 及堪將帥牧宰者, 令五品已上清官及刺史各舉一.) 唐代的 과거제도 가운데 清廉守節政術可稱堪縣令科가 있는데, 王公이 이에 천거된 것을 말한다. ○見舉: 천거

哉58)?

금년 봄(開元23년, 735년)에 황제께서 千畝의 籍田에서 親耕의 의례를 행하시고, 깊은 은혜를 내리셔서 못 인재를 초빙하여 국가 정무를 잘 다스리셨다. 이에 王公은 우수한 현령으로 천거되어 과거에 응시하게 되시고, 賈公은 패왕의 재능을 가지고 계셨기에 조정에 알려져 王霸科에 천거되어 응시하게 되셨다. 세 분이 천거를 받아 京都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대붕이 멀리 남해를 날아가는데, 물을 쳐서 삼천리나 튀어 오르게 하고, 여섯 달 동안 天風을 기다렸다가 하늘에서 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음이니, 어찌 공연히 그리한 것이겠는가?

有從兄太原主簿舒59), 才華動時, 規謀匠物60). 乃黠翠幕, 筵虹梁61), 瓊羞霞

받다. ○以王霸昇聞: 賈公이 패왕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에 알려짐으로써 王伯(霸)科로 천거 받은 것을 말한다. ○王霸: 패왕의 책략 혹은 패왕의 재능을 가짐을 의미. ○昇聞: 위 혹은 조정에 알려지다. 昇은 '上'의 의미.

57) 海激乍乎三千, 天飛期於六月: 세 사람이 천거를 받아 京都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 능력이 출중하여 그것이 뒷받침되었다는 의미. ○三千, 六月: 《莊子·逍遙遊》의 “봉새가 남쪽 먼 바다로 옮겨갈 때에는 물을 쳐서 삼천리나 튀어 오르게 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 구만리까지 올라가서 여섯 달을 날고서야 쉬게 된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에 관련 내용이 있다.

58) 以: 원인, 이유. ○徒: 공연히.

59) 主簿: 관직 이름. 唐代에는 京兆, 河南, 太原에서 여러 현을 관장하기 위해 각각 主簿 한 명을 두었다. 正九品상에 해당. ○舒: 李舒. 이백은 그를 從兄이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백보다 연장이다. 郁賢皓는 《新唐書·宰相世系二上》에 의거, 武后시기의 재상이었던 李道廣의 四世 손이며, 屯田郎中·荊州長史이었던 李元紘의 아들, 현종 시기 재상 李元紘의 조카인 듯하다고 하였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文集》, 三民書局, 2017년, 224쪽.) 관직이 工部郎中.

60) 才華動時, 規謀匠物: 李舒의 재능이 당시를 진동시키고, 일을 계획하고 관장하는 데 매우 뛰어났다. 才華: 재능, 능력. ○動時: 당시를 진동시키다. ○規謀: 계획하다. ○匠物: 기물을 관장하며 고안하다. 첩영은 李舒가 工部郎中의 관직을 맡아서, 工部에서 건축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詹鐸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4103 쪽.)

61) 黠: 검은 모양. ○虹梁: 무지개처럼 굽은 들보. 높이 설치되고 아치형의 들보. 《文選·班固<西都賦>》의 “진기한 동량의 제주로 기묘를 궁구하여, 응용과 같고 무지개와 같은 들보를 받쳐 들다.(因壞材而究奇, 抗應龍之虹梁.)”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들보 모양이 용과 같고, 무지개처럼 굽은 것이다.(梁形如龍, 而曲如虹也.)”라고 주석하였다.

開, 羽觴電舉<sup>62</sup>). 然後抗目遠覽, 憑軒高吟<sup>63</sup>). 汾河鏡開, 漲藍都之氣色<sup>64</sup>); 晉山屏列, 橫朔塞之郊原<sup>65</sup>). 屏俗事於煩襟, 結浮歡於落景<sup>66</sup>). 俄而皓月生海, 來窺醉容; 黃雲出關, 半起秋色. 數君乃輟酌的慷慨, 搖心促裝<sup>67</sup>). 望丹闕而非遠, 揮玉鞭而且去<sup>68</sup>).

<校記>

[規謀] ‘謀’가 咸本에는 ‘詩’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나의 중형이자 太原 主簿 李舒께서는 그 재능이 당시를 진동시켰고, 그는 일을 계획하고 관장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이에 비취 빛 휘장과 무지개 모양의 아치형 들보를 올린 화려한 누대에 연회 자리를 만들었고, 전송연의 진귀

- 62) 瓊羞: 진귀한 음식. 羞는 饈와 같은 의미. ○羽觴: 잔 위에 깃털을 꽂아, 빨리 마시도록 재촉하는 것을 나타낸다. 張衡 <西京賦> “깃 꽂은 잔 이 도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네. (羽觴行而無算.)”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劉良이 “羽觴은 잔 위에 깃털을 꽂아서 신속하게 마심을 말한다. (羽觴, 杯上綴羽, 以速飲也.)”라고 주석하였다. ○電舉: 연회에서 술잔을 빈번하게 들고, 빨리 마시는 모양.
- 63) 抗目: 擧目的 의미. ○憑軒: 난간에 기대다. 軒은 누대의 난간.
- 64) 汾河: 황하의 두 번째로 큰 지류. 지금의 山西의 중부에 있다. 寧武縣涇岑山에서 발원하여, 太原市 南流를 지나서 新絳縣으로 흘러 서쪽으로 꺾어졌다가, 河津市에서 서쪽으로 황하로 흘러들어간다. ○藍都: 太原을 말한다. 태원현 서쪽 7리에 藍谷이 있고, 太原은 北都이다. 이로써 太原을 藍都라고 한 듯하다.
- 65) 晉山: 山西 경내의 많은 산을 말한다. ○朔塞: 朔州는 太原의 북부, 雁門關 서쪽에 있어서 옛날 군사 요새였다. 이로써 朔塞라고 하였다.
- 66) 結歡: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다. ○浮歡: 현재의 즐거움. 덧없는 인생의 즐거움, 현세의 즐거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문장에서는 현재의 즐거움이 타당하다. 謝靈運 <石壁立招提精舍詩>의 “현세의 즐거움은 눈 앞을 가리니, 깊은 관조라야 사물의 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네. (浮歡味眼前, 沉照貫終始.)”에 그 용례가 있다. 詹鏐, 郁賢皓는 “浮生의 즐거움 (浮生之歡)”으로 해석하였다. ‘덧없는 인생의 즐거움’의 경우는, 李白의 <春夜宴從弟桃花園序>에 나오는 구절 “꿈과 같은 덧없는 인생, 얼마나 즐거움을 누리랴. (浮生若夢, 爲歡幾何?)”이 그 좋은 예이다.
- 67) 數君乃輟酌的慷慨, 搖心促裝: 세 사람이 호탕하게 송별주를 마시고,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급히 행장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數君: 王贊公, 賈少公, 尹少公 등을 말한다. ○輟酌: 음주를 멈추다. ○搖心: 심신이 들뜨다. ○促裝: 행장을 급하게 꾸리다. 謝靈運 <初去郡> “고인의 뜻 공손히 받들어, 행장을 얼른 차려 村舍로 돌아갔네. (恭承古人意, 促裝返柴荆.)”에 그 용례가 있다.
- 68) 望丹闕而非遠, 揮玉鞭而且去: 궁궐을 바라보며, 말을 달려 곧장 떠남을 말한다. ○丹闕: 붉은색의 궁궐, 황제가 있는 곳, 京都를 가리킨다. ○且去: 장차 가려 하다.

한 음식의 색깔과 윤택은 구름과 노을이 피어있는 듯하고, 깃 꽂은 술잔은 마치 번개처럼 주고받는다. 그런 다음, 눈을 들어 멀리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난간에 기대어 소리 높여 읊조린다. 맑고 맑은汾水는 마치 펼쳐놓은 거울 같고,漲水는 北都 太原의 기색을 더욱 푸르게 한다. 山西의 못 산이 병풍처럼 나열되어 있고, 朔州 북쪽의 關塞의 교외 들판까지 가로 놓여있다. 太原 주변의 景色을 바라보니, 가슴 속 번잡한 생각 사라지고, 해 저물녘 노을에서 지금의 즐거움을 나눈다. 잠시, 밝은 달은 바다에서 떠올라 취객들의 얼굴을 살펴 보러 온 듯하다. 누런 빛깔의 구름은 관새 밖에 떠 있으니, 약간 가을 기색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세 분이 호탕하게 송별주를 마시고, 마음이 들떠 급히 행장을 정리하였다. 장안 궁궐을 바라보니 별로 멀지는 않지만, 옥을 장식한 채찍을 휘둘러 떠나시려 한다.

白也不敏，先鳴翰林<sup>69)</sup>。幸叨玳瑁之筵，敢竭麒麟之筆<sup>70)</sup>。請各探韻，賦詩龍行<sup>71)</sup>。

<校記>

[玳瑁] '瑁'가 劉本에는 '瑁'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이백이 비록 불민하지만, 여러 문인들 가운데에서 먼저 글을 짓고자 합니다.

69) 白也不敏，先鳴翰林: 李白이 자신이 비록 영민하지 못하지만, 여러 문인들 가운데 먼저 글을 지어보겠다는 의미. ○不敏: 영민하지 못하다. 겸사로 사용됨. 《論語·顏淵》의 “顏回제가 비록 영민하지 못하나, 이 말씀을 일삼아 매진하겠습니다.(回雖不敏，請事斯語矣.)”에 그 용례가 있다. ○翰林: 문인, 文苑.

70) 幸叨: 영광스럽게도 초대 받다. 겸사로 사용됨. ○玳瑁之筵: 호화로운 연회 자리. 玳瑁: 바다 동물 가운데 그 모습이 거북과 같고 그 등에는 아름다운 문양이 있어 아름다운 장식품을 만들 수 있음. ○麒麟之筆: 기린의 붓, 진귀한 붓. 郁賢皓는 “麟角筆로, 문체 나는 시문을 비유한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文集》, 226쪽.)고 하였다. 麒麟은 전설의 동물로 상서로움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玳瑁와 서로 대응하여 사용되었다. 문장에서는 관직으로 나가는 것을 축복하는 문장을 짓겠다는 의미. 王勃 <春日孫學士宅宴序>의 “문인들이 차례로 일어나, 진귀한 붓을 들었다.(文人代興，聊舉麒麟之筆.)”에 그 용례가 있다.

71) 探韻: 옛날 연회에서 시를 지을 때, 각자 찌를 뽑아 운을 취하여 시를 지은 것. ○龍行: 시문을 지어서 송별하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호화로운 연회에 초대받았기에, 감히 상스러운 붓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이 서문을 짓고자 합니다. 청컨대, 여러분들 각자 운을 뽑아 시를 지어서 송별의 정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해설 및 결론

<早春於江夏送蔡十還家雲夢序>는 이백이 친구인 蔡十이 고향 雲夢으로 가는 것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를 지어 증별하며 전송함을 쓴 것이다. 산문의 창작시기에 대해 詹鍇은 開元22年(734년) 봄에 창작되었다고 하며, 郁賢皓의 《李太白全集校注》와 《繫年》에서는 開元16年(728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 서문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락은 蔡十의 재주와 사람됨, 李白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과거 李白과 蔡十의 교류, 이번에 잠시 만났다가 이별함을 서술하고 있다. 제2단락은 蔡十이 타고 갈 배의 행로, 蔡十이 귀향길에 볼 아름다운 풍경, 영원한 이별이 아니니 탄식할 필요가 없음을 서술하였다. 제3단락은 蔡十에게 가을에 같이 여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상기시키며,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서문은 변려와 산문의 구식으로 서정과 서사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평이한 언어를 구사하여 비교적 강한 감동력을 갖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秋日於太原南柵餞陽曲王贊公賈少公石艾尹少公應舉赴上都序>는 이백이 開元23年(735)에 북쪽으로 太原을 떠돌다가, 王縣丞, 賈縣尉, 尹縣尉가 장안으로 과거에 응시하러 갈 때 쓴 전별 서문이다. 이 서문은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락은 太原의 풍속이 淳朴하고 그 형세가 험요함을 서술하였다. 제2단락은 王縣丞, 賈縣尉, 尹縣尉의 학식, 구변을 칭찬하고, 그들의 도의가 인륜으로 관통되고, 명성이 경도에 드날리는 것을 찬미하였다. 제3단락은 王, 賈, 尹 세 사람이 황제의 부름에 응하고, 자신들의 재능이 천거되어 장안으로 과거

에 응시하러 가는 것, 반드시 큰 포부를 펼치리라는 것을 서술하였다. 제4단락은 太原主簿 李舒가 세 사람을 위하여 연회 자리를 마련하여 전별하는 정경을 묘사하였다. 제5단락은 자기가 불민하지만 서문을 쓰게 되는 것을 겸손하게 말하고, 또한 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시를 지어 증별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술 가운데는 이백 내심의 기대와 바람이 은근하게 반영되었다. 이 산문은 글 내용의 단계가 분명하고, 서문의 제목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전개되었다. 地勢, 人物, 敘事, 餞別, 序文의 마무리 다섯 항목에 따라 서술하였다. 서술 가운데는 典故를 운용하고, 비유를 취하고, 자연 경물을 생동적으로 묘사하였다.

#### < 參考文獻 >

- 王琦 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 郁賢皓, 《李白叢考》, 陝西: 陝西人民出版社, 1982.
- 詹鍔 編著, 《李白詩文繫年》,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 牛寶彤 主編, 《李白文選》, 北京: 學苑出版社, 1989.
-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四川: 巴蜀書社, 1990.
- 李白, 《李太白文集》(宋蜀刻本唐人集叢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詹鍔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謝育爭, 《李白散文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8.
-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江蘇: 鳳凰出版社, 2015.
-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文集》, 臺北: 三民書局, 2017.
- 朱金城, <論李白的散文>, 《李白學刊》, 第1輯, 1987.
- 林心治, <隨唐五代的巴蜀散(三)>, 《渝州大學學報》, 第18卷 第2期, 2001.
- 황선재 역, 《이태백 명시문 선집: 시선(詩仙)의 향연》, 서울: 박이정, 2013.
- 신정수, <李白散文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申夏閔, <李白散文譯註(I) - 書類<上安州裴長史書>>, 《中國語文論譯叢刊》, 서울: 중국어문논역학회, 제16집, 2010.

## &lt; Abstract &gt;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 bai's "Here I write a preface by sending Caishi from Jiangxia to Yunmeng in the early spring." and "Here I write a preface by sending Wangzangong, Jiashaogong, who live in Yangquxian and Yinshaogong, who live in Shiaixian, going from Taiyuan to the capital under the recommendation in the fall."

Cho, Sungchun · Cho, Deukchang

This paper translates and explains two prose of Li Bai(李白). The first prose is "Here I write a preface by sending Caishi(蔡十) from Jiangxia(江夏) to Yunmeng(雲夢) in the early spring." This prose consists of three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describes the personality of Caishi, the interacts of Li bai and Caishi in the past and farewell of Li Bai and Caishi. The second paragraph describes the beautiful scenery on Caishi's return to his hometown and Li Bai's longing for his hometown. The third paragraph urges to keep a promise that Li Bai asks Caishi to go on a trip together in the fall.

The second prose is "Here I write by sending Wangzangong(王讚公), Jiashaogong(賈少公), who live in Yangquxian(陽曲縣) and Yinshaogong(尹少公), who live in Shiaixian(石艾縣), going from Taiyuan(太原) to the capital under the recommendation in the fall." This prose consists of five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describes the significantly important geographical position of Taiyuan. The second paragraph describes the learning of Wangzangong, the writing skill of Jiashaogong, and the speaking skill of Yinshaogong. The third paragraph states that Wangzangong and Jiashaogong will go to the capital and take the test. The fourth paragraph describes Lishu(李舒), a cousin of Li Bai, held a banquet at a bar in Nanzha(南柵) and took farewell of three people. The fifth paragraph says that the preface has already been completed and asks to present the poem.

Key words: prose, Li Bai(李白), preface, Caishi(蔡十), Wangzangong(王讚公), Jiashaogong(賈少公), Yinshaogong(尹少公)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0. 31	2018. 11. 13	2018. 11. 18	2018. 12. 2	2018. 12. 31

